



# 깨끗한 물을 위한 남다른 생각으로

경기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 국제화 중심 도시



고귀하고 순결했던 선비들의 모습에 종종 비유되었던 백로는 평택시의 시조이기도 하다. 또한 평화를 상징하는 터라 평택의 넓은 평야와 드넓은 하늘 아래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순박한 평택인들과도 딱 들어 맞는다. 조용한 듯하지만 평택은 지금 국제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큰 움직임을 준비 중이다. 그 중에 선진 수도행정을 보여주는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늘 분주하다.

도시도 사람도 그리고 물도 최고 서울에서 55km, 대전과는 94km, 평택은 대도시와의 거리 격차를 자급자족형 수도권 남부 지역의 거점 도시라는 이름하에 산업 및 국제교류의 중심 지역으로 거듭나고자 준비 중이다. 평택항 확장, 국내외 첨단 대기업 유치, 물류 유통기지 조성 등 오는 2012년까지 미군기지 이전을 앞두고 그동안 미루어왔던 지역 개발에 한창 박차를 가하여 평택을 국제화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평택시의 중장기적 목표이다.

도시 곳곳이 성장의 움직임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도 평택시 비전의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다. 모든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총체적 복지환경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최고의 품질, 최고의 서비스로 시민들을 맞이한다.

“아무리 사치를 부려도 아깝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는 바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마시는 물이기에 향후 2012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명실공히 최고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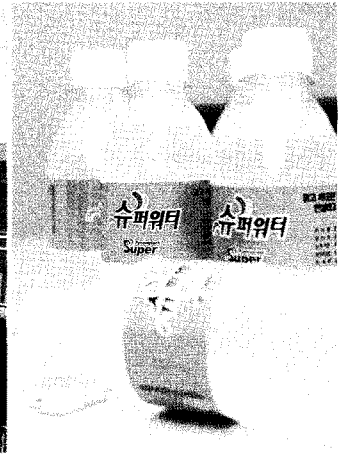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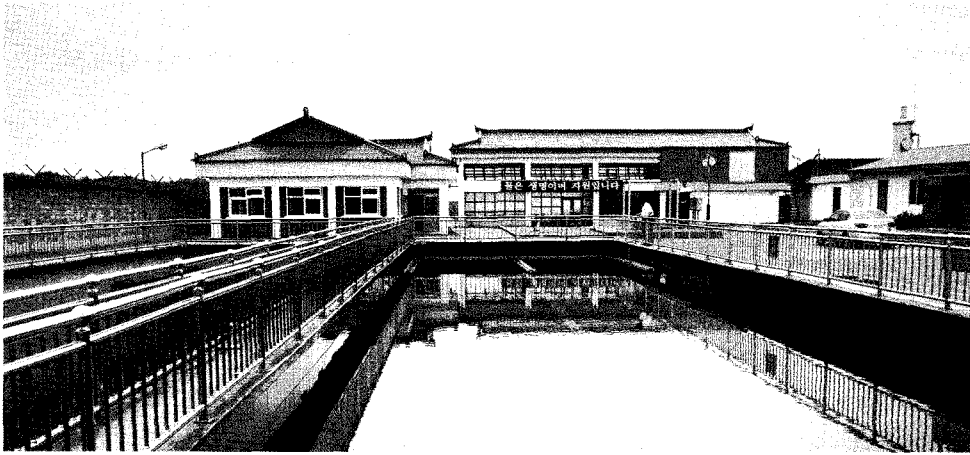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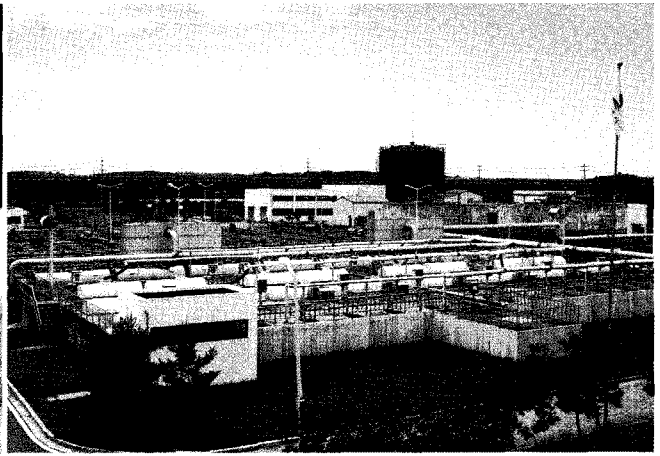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이철순 소장은 수도운영과, 하수운영과, 관리과의 3과 13개 팀 129명의 조직을 이끌어가며 그 누구보다 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도농복합시로 면적이 서울시의 약 70%에 달하고 특히 농촌 지역은 자연부락으로 주민들이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어 급수 구역을 확대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날까지  
급수보급을 100%를 위해 달려나갈 것입니다.  
평택시민에게 언제나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유지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철순 소장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가운데 평택시의 급수보급율은 현재 86.7%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급수보급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정수장 현대화사업,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미군기지 주변마을 생활용수 공급사업, 하수도 BTL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감한 투자로 한발 앞서가는 상하수도 행정 지난 5월 평택시는 수도 원격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연간 34억5천 900만원 규모의 누수손실을 방지했던 사례가 모범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수여받았다. 그동안 평택시가 유수율을 상승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유수율을 올리기 위해 선진국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상수도 유수율제고 종합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 중입니다. 유수율 69%부터 80%

까지는 자체 인력에 의한 누수탐사로 상승시켰으나 잔존 누수가 적어질수록 탐사효율이 많이 떨어지더군요.”

유수율이 높아질수록 누수 탐사에 투입되는 기존 인력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하에 수도 원격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이 한철원 수도운영과장의 설명이다. 2002년 수자원공사 광역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도물이 평택시로 유입되는 경계인 8개 용수구에 유입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한 것을 최초로, 대형 지하누수 6개소를 찾아 약 34억원 상당의 누수 손실을 방지했던 최근까지. 그 노력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다.

“최근 유수율을 80%에서 85%까지 끌어올렸는데 1% 상승시 약 3억원의 수익이 증대되므로 약 15억원의 경영 수익 효과를 거둔 셈이죠.”

이철순 소장은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2011년까지 유수율을 90%까지 상승시킬 계획으로 30억원을 투자하여 2009년까지 전체 중블럭에 대하여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10km 정도의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16km의 노후관을 추가로 교체할 예정이다. 또한 중복 공사 시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사전 조사로 하수도공사와 상수도 공사를 병행 시공함으로써 3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까지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평택시는 2015년까지 이러한 노력을 통해 24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과감한 예산 편성으로 그에 못지않은 더 많은 원가절감 효과를 불러오는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업무 추진의 노력들을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환경과 시민을 최우선으로 “평택시에는 통북하수처리 시설, 장당하수처리시설, 포송하수처리시설, 팽성하수처리시설 등 총 4개소가 운영 중인데 그 가운데 팽성하수처리시설은 작년도 환경부 평가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그 운영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나머지 3곳도 그에 못지않습니다.”

이명근 하수운영과장은 업무의 목표를 ‘시민에게 다가가는 하수처리’라고 설명해주었다. 연중 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들의 견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면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하수처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수처리도 중요하지만 송탄·유천정수장 인근의 상수원보호 구역 내 수질오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수원수에 대한 감시 모니터링은 물론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소하천 6개소에 대하여 철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참고로 송탄정수장은 지난해 여과지 개량공사를 통해 정수탁도 연평균 0.03NTU (Nephelometer Turbidity Unit) 이하의 고품질 수돗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월간 수질 검사 항목이 55개이지만 저희는 먹는 물만큼은 남달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수질검사 전 항목인 250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수돗물을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는 수돗물 슈퍼워터 병입 사업을 실시하여 매년 350ml 병으로 20만병을 생산, 각종 공공행사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철순 소장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선입견으로 인해 수돗물을 꺼리다가 평택시 ‘슈퍼워터’의 물맛을 보는 순간 그 맛을 잊지 못해 자꾸 마시게 된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통된 평가라며 대단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공무원은 회사원이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을 바라보는 회사원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다 도로굴착이나 수돗물 단수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항상 시민들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입니다.”

‘해야 하는 일’을 미루지 않고 곧바로 ‘하고 있는 일’로 바꾸는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의 노력과 열정들이 오늘도 모두가 부러워마지 않는 많은 성과들로 열매를 맺고 있다. ☺

## mini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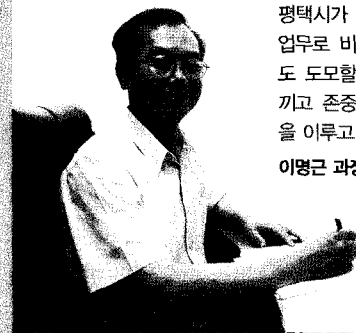
2012년까지 5개년 동안 8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선진화된 상수도 개선 사업을 펼쳐 녹물제화 사업을 기필코 실현할 것이며, 그 이후에도 최고의 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철원 과장(수도운영과)



평택시가 상·하수도의 철저한 공조 업무로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남다른 생각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명근 과장(하수운영과)



민원이 발생한 후의 조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함으로써 많은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 상생 발전하는 동반자 관계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김재수 과장(관리과)

